

한국 수의(獸醫) 발달사



경기도 수의사회 부회장

이시영

중국에서 전해진 수의학

아득한 옛날부터 가축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으니 가축도 병이 나면 누군가가 치료를 해 주었으리라. 역사 이전부터 이미 수의사(獸醫師)라는 존재는 이 땅에 있었으며, 그들은 많은 축생들의 영혼을 위로하기도 했으리라.

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축화가 가장 늦어서 청동기시대부터 인간이 말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말을 부릴 수 있는 도구인 재갈이라는 것과 등자(橙子)라는 것이 유라시아 유목민족이었던 스키타안(Scythian) 민족에 의해서 2-3천년 전에 개발된 이래 인류 문화를 지배하여 왔던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말은 인류의 종족보호와 영역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만 하더라도 말은 중요한 전쟁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수의술은 말에서부터 먼저 적용되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많은 선구자들이 말 병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부터 수의술이 발달하였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말 병의 진료를 하였으나 그중 역사에 우뚝 선 자가 있었으니 마사황(馬師黃)선생과 손양(孫陽)선생인데 마사황 선생은 전설의 수의사라고 한다면 손양 선생은 역사에 기술되어 있는 수의사, 이름하여 백락(伯樂) 선생이라고 하는데 진(秦)나라 목공(穆公)때 사람이었으니 오늘날 수의사의 원 조상이라고 해도 좋을 인물이다. 전설의 수의사 마사황이라는 분은 질병의 권위자이면서 상마가(相馬家)라고 한다면 백락은 질병을 치료하는 침술의 권위자이면서 상마가였다는 것이 서로 비슷한 면이면서 다른 면이기도 하다. 아무튼 그들 두 사람은 동양에서 수의학의 비조(鼻祖)라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동양문명의 기원은 중국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수의학도 중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한다. 즉 중국에서 한반도로 전해지고 다시 일본으로 전수시키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마사황을 전설의 수의사라고 하는 이유는 일찍이 황제(黃帝)시대(4천 수 백년 전)의 수의사였다. 그래서 중국 수의학에서는 마사황(馬師黃)을 수의학의 비조로 삼고 가축을 치료한 시초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의학 서적인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에서 말 병에 대해서는 거의가 황제와 마사황간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신각침의참마경대전(新刻針醫參馬經大典)의 문맥론(問脈論)에 황제와 마사황에 대해서 “마사황자 황제시 명목지성사야 생이총명 장이영통 능상 마우지형신 진마우지맥식찰오장지허실(馬師黃者 黃帝時 明牧之聖師也 生而聰明 長而靈通 能相馬牛之形神 診馬牛之脈息察五臟之虛實)” 이라 하여 마사황은 마의(馬醫)술에도 능통 할뿐더러 상마술에도 역시 능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마사황은 마의이면서 상마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사황과 백락은 마의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동양에서는 의성(醫聖)으로 편작(扁鵲)과 화타(華佗)를 들고 있다. 편작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명의로서 성은 진(秦) 이름은 월인(越人)인데 노나라에 살았기에 노의(魯醫)라고도 했다. 젊어서 여관 심부름꾼 감독으로 있다가 장상군(長桑君)이라는 의술에 능한 노인을 만나 금방(禁方)의 구전과 의서를 물려받아 의술을 터득하였으며, 곡국(國)의 태자가 죽게된 것을 살려내어 천하의 명의로 불리었다. 진나라 태의령(太醫令) 이혜(李醯)의 흥계로 암살당했다. 화타(華佗)는 중국 후한 말의 명의로서 자는 원화(元化)라고 하며 안휘성 사람으로서 그는 신진대사를 근본원리로 삼아 사람의 병을

치료하였으며, 마비산(麻沸酸)이라는 마취약으로 최초의 외과수술을 했다. 또한 기생충 구충등 새로운 의술을 확립하여 후세까지 화타 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중요시하였으며, 또한 건강유지와 양생술(養生術)에 뛰어난 오금희(五禽戲)라는 보건체조를 고안하였다. 위(魏)나라 조조(曹操)의 시의가 되었으나 조조의 노여움을 사서 주살 당했다.

최초의 수의(獸醫)라는 용어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의술이나 수의술이 발달되어 왔었다. 특히 주(周)시대 이전에는 문명이 정돈 제도화하지 못하고 또한 일정한 명칭도 없었으나 수의술은 대단히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상동물은 주로 말이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최초로 수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주의 무왕(武王)이 즉위한 후 문물과 관제가 제도화하는 가운데 질의(疾醫; 내과), 상의(傷醫; 외과) 식의(食醫; 위생)등과 더불어 수의(獸醫) 등의 4과가 설치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의술이나 수의술은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아는 것 보다 훨씬 이전일 것이다.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주대(周代)에 이것이 제도화할 때 수도도 인의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중요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간 한자로 수의(獸醫)라는 용어는 거금 3000년 전으로 올라간 주대 초기에 제정된 어휘인 동시에 관직명이었던 것이다. 주례천관(周禮天官)에 “의사 중의지장(醫師 衆醫之長)”이라고 하였고, 그 밑에 “수의하사사인 주 수우마류소 차직은 주치우마 미필치기야수(獸醫下士四人

注 獸牛馬類疏 此職云 主治牛馬 未必治其野獸”라 하여 수(獸)라 함은 소와 말을 지칭하는 것이고 야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수의조에는 “수의장류병수소 차의 유료가축 불료야수 수축의통 금이축해수 고축수연언지야(獸醫掌類病獸疏 此醫 唯療家畜 不療野獸 獸畜意通今以畜解獸 故畜獸連言之也)”라 하여 축(畜)을 수(獸)와 동의(同意)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의의 수 자는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축 이외의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수의는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양의 수의술은 의학의 한분과로서 소 말을 비롯해 소위 육축의 치료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의는 목축과 관계없는 순수한 의원으로서 치료에만 종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수의학의 역사는 오랜 것이지만 과학적인 진보가 극히 느려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한편 서양 근대의학의 기반은 멀리 기원전 2300년 전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닦아 로마로 전해진 것이지만 그 이전의 원시시대에는 질병은 신이나 악마가 가져다주는 생각에서 이에 대한 치료는 동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술적(呪術的) 또는 무속적(巫俗的)이었을 것이다. 수의술에 관한 기록은 이미 이집트의 말기에 기록되고 있으나 대개 장제사(裝蹄師)나 도부(屠夫)들에 의해 가축을 치료하였으며, 특별히 수의라는 것은 없었다. 그후 수역의 창궐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자 수의학이 생기고 1762년 프랑스의 리옹 수의학교가 생기고 1791년에 영국에서도 수의학교가 생기게 된 것이 근대 서양수의학의 발달사라 할 수 있다.

동양 수의학의 개념

서양수의학이나 동양수의학 모두 태초에는 미신적인 방법에서 독자적으로 발생되었고, 중국에서는 약 3000년 전에 이미 과학적인 기록을 남겨놓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미 과학적인 수의술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눈부시게 발달한 서양수의학에 밀려서 미신적인 한방료법(韓方療法)으로 전락된 감이 없지 않다.

의학이라는 ‘의’ 자만 하더라도 미신적인 치료 방법시대와 과학적인 시대가 다를 수 있다. 질병이 귀신이나 악마에 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치료를 당연히 무당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자의 아래 번이 무당 무(巫)자가 들어가는 의(醫)자를 사용하다가 술이 소독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무’ 자 대신에 술 주(酒)자를 사용한 의(醫)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차츰 과학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그 치료방법도 과학화되어 가면서도 동양의학의 근간인 사상(四象)의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음양오행과 십간과 십이지가 쓰임으로서 서양의학으로부터 미신적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방의학이나 수의학의 원리를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에 사람의 음양은 외(外)가 양(陽)이 되고 내(內)가 음(陰)이 되며, 인신(人身)의 음양(陰陽)은 등이 양이 되고 배가 음이 되며, 장부(臟腑)에 있어서는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등 오장(五臟)이 음이 되고, 담(膽) 위(胃) 대장(大腸)

소장(小腸) 방광(膀胱) 삼초(三焦)의 육부가 양이 된다는 것이고, 수(水) 목(木) 화(火) 토(土) 금(金)을 오행(五行)이라 하여 수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는다는 상생설(相生說)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의학이나 수의학에 있어서는 신체 각부를 음양으로 구분하고 오장육부의 생리적 기능을 오행에 관련시켜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 병의 진맥(診脈)도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며, 침구의 경락도 12경락을 구분하여 1년의 12월, 12진에 부합되게 하며 경락의 맥 수를 1년의 365일에 일치하게 하는 등 음양오행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예를 황제와 마사황간의 문답에서 들어보자. 황제가 묻기를 오행극(五行克)이 무엇이나? 마사황이 “수가 금을 만나면 치(伐)고 화가 수를 만나면 꺼지는(滅)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원리에 따라 어긋남이 없다”고 하니 다시 그러면 말의 질환의 식별방법은 어떠한가? “도끼자루를 베는 데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듯이 병을 진찰하는 데는 맥색이 아니면 할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주로 진맥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백락(伯樂)이라는 수의사

주나라 이후 수의학도 의학의 한 분야로 취급할 당시였으니 편작이나 화타 그리고 백락 모두 의성이었는데 유독 백락은 동물의 의학 특히 마의(馬醫)에 능통하였

다는 것이 역사서에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의 방혈법(防血法)에 백락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진나라 목공이라는 왕이 백락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공께서 묻기를 “봄에 말에게 침을 주어 피를 내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은 계(癸)에서 기(氣; 만물생성의 근원력)를 얻는바 계는 음수(陰水)니 물은 신(腎)을 주관하고 신(腎)은 정(精; 만물을 생성하는 음양의 기)를 주관하는 고로 정기가 많으면 기혈이 적습니다. 그러나 말은 기를 병(丙)에서 받는데 병은 양화(陽火)요 화(火)는 심장(心臟)을 주관하고 심장은 혈액을 주관하는 고로 혈기(血氣)가 많아지면 정기(精氣)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은 반드시 침을 찔러 피를 빼므로 혈기가 너무 성하여 질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목공께서 다시 왜 피를 꼭 초봄에 빼야하느냐고 되물었다.

“대개 봄은 목(木)이요 여름은 화(火)이며 목은 화를 발생하는데 말은 이미 화에 딸린 가축입니다. 화는 또 해(亥)에서 기를 받아 인(寅)으로 생하고 오(午)에서 왕성하며 무(戊)에서 굴복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봄 시초에 침을 찔러야 봄 화기가 생길 때에 침을 찔러서 그 혈기를 분산시켜 크게 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비록 화축이나 여름에 화가 왕성한 때에 가서도 혈기가 고루 조화되므로 음탕함이 지나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대화는 말에게 봄에 피를 빼는 것에 대해서 오행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말의 기는 사람의 기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백락은 마의 외에도 유명한 상마가로 알려져 있다. 상마라는 것은 말의 좋고 나쁨을 아는 것인데 오늘날도 말을 구입할 때는 꼭 수의사가 가는 것도 같은 백락이다. 말을 다루는 수의사는 좋은 말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상마술(相馬術)이라 할 수 있다. 상마술은 말의 골격구조를 가지고 좋은 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또한 병이 있으면 좋은 말이 아닐 수 있기에 병이 있는가 아닌 가도 알아야 한다.

중국에서 문장가로서 널리 알려진 당송(唐宋)팔대가의 한 사람인 한퇴지(韓退之) 선생의 짧은 논문에 마설(馬說)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백락을 등장시켜 천리마(千里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세상에 백락이 있고 그런 다음에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 그러므로 비록 명마(名馬)가 있다하나 다만 노예(奴隸)들의 손에 욱되게 하며 마구간에서 죽어가니 천리마라 일컫지 못한다. 말이라 하되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것은 한끼에 곡식 한섬을 먹어 치운다. 말을 기르는 자는 그 말이 천리를 달릴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고 덮어 놓고 기르는 것이다. 이 말이 천리를 달릴 능력이 있을 지라도 먹이를 배불리 먹지 않으면 기운이 날 수가 없으며 그 재주의 훌륭함이 밖으로

드러나지를 못하게 된다. 또 그 위에 보통 말과 같기로 하여도 그마저 되지를 않는다. 이래서야 어떻게 천리마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 말을 채찍질하되 그 도(道)로서 하지 않고 이를 기르되 능히 그 재주를 다하지 않고 울어도 그 뜻을 통하지 못하매 채찍을 손에 들고 말 앞에 다가서서 천하에 양마(良馬)가 없다고 한다. 아! 아! 참으로 좋은 말이 없는가, 말을 알아 볼 줄 아는 이가 없는가.”

이 문장은 비록 짧은 논문이긴 하지만 말을 기르는 사람들로서는 깊이 명심해야 할 구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문장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퇴지 선생 자신을 천리마에 비유했다고 하는 이도 있다. 즉 자기의 능력을 알아 줄만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발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루산(謝壘山)이라는 사람은 본 편의 가장 큰 뜻은 영웅호걸은 반드시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만나서 이를 존경하기를 고관대작처럼 하고 이를 부양하기를 후록(厚錄)으로서 하고 이에 임하기를 중권(重權)으로서 하여 그 재능을 비로소 펴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백락에 대한 장자(莊子)의 평가

아무튼 백락이라는 수의사가 말을 잘 보고 말 병을 잘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자(莊子)는 백락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들 노자(老子)나 장자가 추구하는 무위

자연(無爲自然)의 사상과 달라서 그런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시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즉 장자의 마제편(馬蹄篇)에 백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말은 말굽으로서 서리와 눈을 밟을 수 있고, 털로서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들어 뛰기도 하니 이것이 말의 본성이다. 그래서 의대(義臺; 의례를행하는 높은 대) 노침(路寢; 훌륭한 궁전)이 있어도 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백락이 나타나서 나는 말을 잘 다룬다 하며 털을 태우고 깎으며 발톱을 깎고 낙인을 찍으며 굴레와 고삐로 여러 놈을 묶어 마구간에 매어 놓으니 말 중에 죽는 놈이 열에 두셋은 되었다. 게다가 말을 훈련시킨다고 배를 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며 달리게 하고 뛰게 하며 정돈시키고 늘어 세우며 앞에서는 재갈과 끈의 귀찮은 걱정이 있고, 뒤에는 채찍과 회초리의 위엄이 있어서 말 중에 죽는 놈이 이미 반이 넘게되었다.(중략) 대저 말이 들에 있을 때는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기쁘면 목을 맞대고 서로 비비며, 화가 나면 서로 등을 돌려 서로 찬다. 말의 지혜는 이 정도에서 그친다. 그러다가 그 말에 수레나 명에를 씌워 월제(月題; 명에 막이와 끌채)에 붙들어 매면 말의 지혜는 끌채나 마구리를 부러뜨리고 명에를 꺾으며 수레장막을 찢고 재갈을 씹어 부숴 버리며 고삐를 물어 끊어 버린다. 그러므로 말의 지혜가 도둑과 같이 된 것은

백락의 죄다.

대저 혁서씨(赫胥氏 ; 옛날의 전설적인 제왕) 때에는 백성들이 집에 있으면서 할 일을 알지 못했고, 나가도 갈 데를 몰랐다. 음식을 먹고 즐기며 배를 두드리며 놀았으니 백성들의 능함은 이럴 뿐이었다. 그러다가 성인이 나타나자 예악(禮樂)때문에 굽히고 꺾게하여 천하인의 몸을 바로 잡았고 인의(仁義)를 높이 내걸어 천하의 마음을 위로했으므로 백성들은 곧 분주히 지혜를 좋아하고 이익을 다투어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또한 성인의 허물이다.”

장자가 이 글을 쓰게된 것은 인간에 대한 경종이었다. 즉 원래 순종하는 말의 본성을 흉포하게 만든 것은 백락의 죄인 것처럼 본래 순박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악독하게 만든 것은 인의예악을 만들어 낸 천하의 지배자나 성인의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글을 다른 의미에서 음미해 볼 수도 있다. 말은 말답게 키워야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키우면서 애마사상을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말은 말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말의 본성대로 풀어주는 것이다. 말을 강제로 가두어 키우는 것은 모두가 백락이 좋은 말을 볼 줄 알고 그를 부릴 줄 알게 한때부터라고 해서 백락의 죄라고 했다. 어떻게 백락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마의였으며 상마가였는가 보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외치는 노장 사상에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이다.

우리 신화(神話)에서의 수의학

우리 나라에서 원시시대의 수의학 및 의학은 단군신화(檀君神話)나 고구려의 조주몽신화에서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단군신화에서 우리 수의학의 개념을 살펴보면 환웅(桓雄)천왕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등 졸병 삼천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리시니 이것을 일러 신시(神市)라 하였다. 환웅은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악(善惡)등 오대강목(五大綱目)으로서 삼백육십여조에 이르는 인간사회의 모든 일을 치화하는데 때마침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살면서 인간이 되기를 원해 썩과 마늘을 처방하고 약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한다. 그 결과 곰은 그대로 해서 인간으로 변했고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이 태어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설화이긴 하지만 의학분야나 수의학 분야와 관련이 깊다.

우리 나라 의사(醫史)학계는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하나로 국민의 질병을 처방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주재하신 까닭에 한토의약(韓土醫藥)의 창시자로 보고 있다. 신시시대에도 가축들이 있었으며 가축들의 질병도 치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썩과 마늘이 사용된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곰과 호랑이라는 동물이었다는 점에서 썩과 마늘은 수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웅천왕은 의약의 창시자일뿐만 아니라 수의학의 창시

자라 해야 할 것이다.

단군의 설화이외에도 당시의 관직명에 동물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오대신 칭호에 도가, 개가, 크가, 소가, 말가등이 있는데 이는 대신의 칭호뿐만 아니라 오방의 신명이기도 하였다. 옥판의 도 개 걸 유 모는 이두자로 쓴 오가의 칭호인데 도는 뜻가(豬加), 개는 개가(狗加) 걸은 신가로서 곧 크다는 크가(大加), 유는 고음의 소니 즉 소가(牛加), 모는 말가(馬加)였음을 볼 때 수렵사회가 끝나고 농경사회로서 가축을 길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축의 번식이나 질병의 치료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 백마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볼 때 말을 도살하기 위한 해부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단군 조선시대에 신단을 차려놓고 매년 오월과 시월에 제사를 지내고 또한 전쟁이나 나라의 큰일이 있을 때마다 비록 오월과 시월이 아니더라도 소를 잡아 신단에 제사를 지내고 소의 굽으로서 그 앞에서 길흉을 점칠 때 굽이 떨어지면 흉하다고 하고 굽이 붙어 있으면 길하다고 여겼다. 소의 굽으로 점을 치는 것은 중국의 은나라시대의 갑골점(甲骨占)법에 유사한 것이지만 부여시대에도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소를 잡는다던가 소 굽을 이용한 것을 보더라도 이미 가축으로서 소를 기르므로

거기에는 반드시 수의술도 있었을 것이다. 가축이기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도살을 하였을 것이나 사람의 손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다면 혹은 어린 가축에게도 무자비하게 도살만이 선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의 고주몽의 설화에서는 고주몽이 직접 수의술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몽이 어릴 때 마구간에서 말과 함께 자라면서 말 젖을 먹었다는 것은 말과 친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柳花)부인이 주몽에게 좋은 말 고르는법(擇馬法)을 배워주었으며, 주몽은 이를 이용하여 좋은 말에게 여위게 할 수 있는 방법인 혀(舌)에다 바늘을 꽂아서 여위게 했다. 그 결과 금와(金蛙)왕이 쓸모 없어 보이는 그 말을 주몽에게 주도록 하는 과정이 등장한다. 주몽은 위에서 설명한바 있는 마사황이나 백락과 같은 상마가이면서 직접 수의술을 시술해서 좋은 말에게 여위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일단 자기의 소유가 된 후 그 말을 다시 건강한 말로 만들었다는 것은 치료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몽이 엄체수를 건너서 큰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 비둘기 두 마리가 나타난다. 주몽은 그 비둘기들이 어머니 유화부인이 보낸 것으로 알고 비둘기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그 속에서 씨앗을 빼내고 물로 비둘기의 배를 씻으니 비둘기가 살아서 다시 날아갔다 라는 것이다. 어찌되었던 고주몽은 비둘기를 외과수술을 하였다는 기록이기도 하다. 즉 말의 혀에 침을 꽂은 것이라던가

비둘기의 배를 가르 것은 외과적인 시술이었다. 이것이 설화이건 신화이건 간에 고주몽의 능력을 신격화한 것이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수의학의 여러 형태

우리 조상들은 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조선조 초기의 수의서적에 요즘 사용되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가하면 대한제국시대에도 무속적인 방법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요즘과 같은 전문적인 해부학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효령대군의 7대손인 이서(李曙)장군이 지은 마경언해(馬經諺解)라는 책의 서문에 논마유부모(論馬有父母)라는 기록이 있다. 말의 부모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미 말의 쓸개가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동계가 곡천에게 물어 가로데 말의 부모가 있느냐? 곡천이 대답하여 말은 용의 자식이다. 천지가 처음 열릴 때 동해에 굴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굴강이라는 용과 굴녀자라는 용이 살았는데 굴녀자가 비토를 낳았고, 비토는 기린을 낳았고, 기린은 말을 낳았다. 천황이 이를 용구라 하였는데 이 말이 사람을 물어 먹음으로 동중선을 시켜 그 말의 쓸개를 빼버리게 하였다.

그 후부터는 사람을 차거나 물기를 하지

않아 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기록이다. (東溪問曲川曰馬有父母乎 曲川曰龍之生也 混元初開 始有二龍於東海屈山而指山爲姓也 一名屈強一名屈女子 屈女子生飛兔 飛兔生麒麟 麒麟生馬 天皇名曰龍駒 後因食人 董仲仙摘其膽汁 息其蹄齧 更名曰馬也)

이 기록은 비록 전설적이거나 설화적인 냄새가 나지만 말의 쓸개를 떼어 내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는 이미 말의 해부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에게 조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이 사람을 물고 차는 버릇을 없애고 사람의 지시에 순응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말의 안방충(眼房蟲)의 치료는 지금도 그 책에서 써 놓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그만큼 수의술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가축의 질병도 불법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승려들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승려의학(僧侶醫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중생은 생(生) 노(老) 병(病) 사(死)의 사대고(四大故)를 비롯해 모든 고의 세계에서 살므로 인생의 세계에서는 병고를 면할 수 없는 인과가 있고 그 병고는 지(地) 풍(風) 화(火) 수(水)의 사원소(四元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이른바 사대부조설(四大不調說)을 인도 의학의 증시조라 할 수 있는 차라카(Charaka)가 주장한


것인데 우리 나라의 동의보감과 이수광의 지봉유세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인도의 의학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말의 무병장수를 불법에 의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조선시대의 부적판이긴 하지만 그의 제목이 우마장생경(牛馬長生經)으로 南無宿通大神 南無天作大神 南無天命大神 南無白衣大神 南無年長大神 南無時長大神 南無主長大神 南無天德大神 南無天理大神 南無日月大神 日光大神 月光大神 二如律令沙波河로 끝나는 우마병소멸부(牛馬病消滅溥)가 우리 민간에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시시대부터 대자연의 변이는 곧 인간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연계의 현상으로 사람 또는 국가의 길흉을 점치게 되었다. 사람의 질병뿐 아니라 가축의 질병도 자연의 이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에 있어서 일자(日者) 또는 일관부(日官府)라는 관청이 있었다. 고려 때에도 일관이 있어서 가축의 질병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소나 말의 질병이 대유행했을 때 일관을 파견하여 그 종식을 빌었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말과 관련된 천체는 천마사성(天馬驪星)이다. 이 별은 일명 마조(馬祖)라고도 하며 마의 조상으로서 말에 관한 모든 일을 좌우하는 별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말의 역병의 치유를 위해 이 별에 제사를 올리는 일도 고려시대에 시작되었다.

이것을 마조제(馬祖祭)라 하며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은 단을 마조단이라 하였다. 마조제는 매년 중춘(仲春)에 좋은 날을 택해서 제사를 지내며 이 제례법은 고려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마조단 이외 말을 사양관리하는 양마자(養馬者)를 위한 선목단(先牧壇)을 설치하고 매년 중하에 제사를 지내고, 또한 말을 이용한 기승자(騎乘者) 즉 마병이나 승마자를 위한 마사단(馬社壇)을 설치하여 매년 중추에 지내고, 말을 질병으로 보호하기 위해 말에게 해를 끼치는 악신을 위해 마보단(馬步壇)을 설치하여 매년 중동에 제사를 지내었다. 이와 같은 말을

위한 제사는 아마 삼국시대에도 있었을 것이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않다. 또한 이 제사들은 대한제국시기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말을 위한 무병장수의 행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그만치 말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전근대적인 습속인 주술과 무술적 방법이 사회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의부문에 있어서도 가축질병이 대유행 때는 물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미신적 혹은 무속적 방법이 국가기관이나 개인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졌다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ar mite 전문치료제

덱 소 릴

개와 고양이 ● 세균성, 곰팡이성 외이염의 치료 ● 이도내의 기생충 제거

▣ **특장점**

◇ 세균성, 곰팡이성 외이염치료 + 이도내의 기생충 구제

항생제, 소염제, 살충제의 복합처방으로 동시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치료효과

특수부형제 사용으로 액체상태로 사용후 곧바로 gel상태로 전환되어 목적부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치료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 사용하기 간편한 용기

부드럽고 탄력성이 우수한 용기를 사용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주식회사 버박코리아

☎ 02-496-4070~ 4